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Ways to Revitalize Art Archive Professionals

이지은(Jieun Lee)<sup>1</sup>, 김지현(Jihyun Kim)<sup>2</sup>

E-mail: lje0122@hotmail.com, kim.jh@ewha.ac.kr



1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박사 과정  
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4.1.15  
최초심사 2024.1.21  
게재확정 2024.1.25

ORCID

Jieun Lee  
https://orcid.org/0009-0006-8921-9608

Jihyun Kim  
https://orcid.org/0000-0003-0209-4365

###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초 록

본 연구는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구축에 관한 실무자 및 연구자 인식과 의견을 기반으로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술 아카이브 및 정책 관련 실무자와 기록관리 연구자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질적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근거이론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57개 개념과 27개 하위범주, 13개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영역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술 아카이브 전제조건인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미술관 내 미술 전문 아키비스트가 전문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초 연구로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strategies for cultivating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art archives, drawing insights from the perceptions and opinions of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art archives. To achieve this objective,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and records management researchers related to art archives and policies were conducted.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was used in the analysis of interviews. The outcome yielded 57 concepts, 27 subtopics, and 13 super-topics. Through this, the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review of persistently emerging challenges related to art archive professionals, and by analyzing the opinions of experts in each field, this research presents effective ways to revitaliz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Ultimately, this study offers valuable implications that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professionals, who are prerequisites in art archives, within society and provide a platform for art archivists in museums to establish themselves as art archive professionals.

Keywords: 아트 아카이브, 시각예술 아카이브, 미술관 아카이브, 아키비스트, 질적연구  
art archives, visual art archives, museum archives, archivist, qualitative research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계 작가나 미술사학자 등 미술 관련 개인 혹은 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에 대한 기록으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미술 아카이브는 정보적, 증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미술사를 정립하고 지원하는 문화예술 전반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미술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과 절대적인 시간, 전문적인 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술관 내에 미술 아카이브 센터를 설치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2013년 10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과천), 2014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실(서울)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부산 지역 등의 공립미술관에서 미술도서관과는 별도로 기록을 관리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기관별 현행 추진과제와 함께 10-30년 이전에 축적된 방대한 미술 아카이브를 최소의 인력과 예산으로 구축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거나 기록을 전시·출판 등의 서비스에만 초점을 두어 구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조사된 국공립 미술관 80곳 중 미술자료·도서실이 단독으로 설치된 기관은 52곳이었다. 이 52곳의 미술 관련 기관들 가운데 물리적 공간과 함께 기관에 부합하는 미술 아카이브 정책을 마련하고 절차를 표준화하며 국제적 지침에 맞게 자료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기관은 총 4곳으로 전체의 약 5%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미술 아카이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지만 미술 아카이브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 습득 및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성문화된 윤리강령 등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선행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개념과 역할 및 특성을 살펴보고 미술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술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무자, 연구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내 미술 아카이브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양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현황분석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역사와 발전 상황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대한 개념은 문헌정보학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미술사학, 박물관학, 예술경영학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제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하였다.

둘째, 사례분석을 위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미술 아카이브 관련 기관을 파악하고 각 기관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22)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미술관 80곳 중 미술자료실, 도서실이 단독으로 설치된 기관은 52곳이었다. 이 기관들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한 4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황조사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대내·외 서비스하는 국내 사례 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부산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총 4곳을 선정하였다.

셋째,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사하고자 국내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4개 기관 실무자 및 정책 관련 실무자, 교육 관련 연구자를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확보하고 일대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10년 이상의 미술 아카이브 경력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실무자 3인, 기록연구사 1인, 미술 아카이브 인력, 예산, 창직 등의 정책, 제도를 수립한 실무자 3인, 기록관리 전문교육 과정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연구자 2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23년 8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에 준비한 4개의 대범주로 구성된 질문지를 토대로 피면담자 반응에 따라 질문의 가변성을 일부 허용하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사전 질문 이외의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인터뷰의 결과는 질적연구방법론 중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론(grounded theory methodology)에 따라 분석되었다. 먼저 이론적 표본을 추출하고 수집된 정보들을 비교하고 범주화하여 자료의 분석적 비교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후 자료를 주요한 정보의 범주로 코딩하였는데 개방코딩(open coding)을 시작으로 축코딩(axial coding)을 통해 패러다임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현황에 따른 맥락과 인과 관계를 살펴보고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운영 체계 등을 제안할 수 있었다.

### 1.3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미술 분야와 기록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미술 분야에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도입 및 양성에 관한 연구는 2000년부터 미술사학, 박물관학, 예술경영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미술 아카이브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수이긴 하지만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아카이브 프로세스에 입각한 구체적인 연구들(김기현, 2000; 서수옥, 2006)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미술 아카이브 도입 및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었다(정혜린, 2008; 황동열, 2007). 또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만 국한된 연구는 아니지만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전문인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김영호, 2015; 김혜인, 2013; 박남희, 2018; 백령, 2007). 백령(2007)은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과 양성에 대한 국내 현황을 분석하였고 김영호(2015)는 한국 뮤지엄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초석이 되는 뮤지엄 관련법이 정립되어야 하며 뮤지엄 전문인력의 직무별 세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김혜인(2013)은 아키비스트를 시각예술분야 기획인력이라고 구분하고 북유럽, 독일 등에서 진행되는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사례들을 살펴봄에 국내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남희(2018)는 문화예술기관들에서 증대되는 미술계 환경 변화에 따라 큐레이터 이외에 에듀케이터, 레지스트라, 테크니션 등의 세부적인 전문인력 요청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록관리 분야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는 1999년 한국 기록학의 도입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교육을 중심으로 독일, 이탈리아, 중국 사례를 통해 국내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고(김영애, 2000; 김정하, 2001; 이상민, 1998) 북미,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한 연구로 이어졌다(이운정, 정연경, 2021; 정연경, 2003, 2005, 2010).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는 문헌연구 기반의 연구들이며 이 외에도 기록관리 현장에 대한 연구도 전개되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계약직 채용으로 인해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지적한 이영학(2009)의 연구를 시작으로 강주연 외(2019)는 기록물

관리전문요원 45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기록관리학 교과목의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김유승 외(2021)는 기록관리 전문직 교육과정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연구자 및 현장 실무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미술 분야에서는 국내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나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도입 및 양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 방법에서도 국외의 현황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및 미술 관련 기관 실무자,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례분석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면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국가별 또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국외 사례분석을 시작으로 기록관리 전문직 교육과정의 질적 제고와 계속 교육 및 심화 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및 제도 인증, 교육과정 혁신에 관한 연구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와 기록관리 전문교육 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에 부합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양성 역사와 발전

이 절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의 역사와 발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의 용어 혼선을 막기 위하여 국내·외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용어 자체에서 뮤지엄(Museum)의 큰 범주 안에 역사, 과학, 미술, 공예,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도 박물관(Museum)외에 미술관(Art museum)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적 정의 및 정부 실태 조사에서는 발전계획 등이 이분법적으로 분리, 수립되어 박물관과 미술관을 이원화된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국립 기관 및 여러 부서에서 박물관과 미술관 정책을 분리하여 담당하였고 정책의 방향성 및 일관성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후 박물관정책과와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각각 관리되던 정책이 2017년 9월 문화기반과로 통합·관리 개편됨에 따라 ‘뮤지엄(Museum)’으로서 박물관, 미술관이 통합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오던 많은 관계자에게 정책 수립 환경의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김혜인, 2014). 이러한 시점에서 조직에 우선하는 법제로서 법 용어의 정비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새로운 법명을 「박물관법」으로 정하고 박물관의 하위 개념인 미술관에 대한 정의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이 다르지 않은 기관임을 밝히고 박물관 용어의 영문 번역을 뮤지엄(Museum)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세분화할 경우, 일반박물관(General Museum)과 미술박물관(Art Museum)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영호,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뮤지엄(Museum)의 의미를 박물관과 미술관의 병렬적 개념으로 양분화하지 않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적 관점에서 국외 뮤지엄(Museum) 관련 아카이브 정책, 인력 부분들을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Museum의 국문 표기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추어 미술관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1 미국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개념과 역사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이하 SAA)는 북미 최대의 기록관리 전문가협회로 1936년 창립된 이래로 기록관리학 교육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개정해오고 있으며 정부, 대학, 기업 등에 소속된 6,200여 명의 전문 아키비스트로 구성된 조직이다. 기업, 구술사, 미술관 등의 47개 아카이브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부문별로 전문가 조직이 구축되어 있다. 이 가운데 SAA 미술관 아카이브 분과(Museum Archives Section)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를 효과적으로 운영, 지원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미술관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아키비스트가 상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고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미술관 아키비스트는 다른 부서의 직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미술관에서 생산되고 수집된 기록물을 평가, 정리, 기술, 보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록관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적인 모범사례 및 윤리에 부합하는 정책과 절차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AA 미술관 아카이브 분과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미술관 아카이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SAA가 창립된 43년 후인 1979년 스미소니온(Smithsonian) 개최 벨몬트 회의(Belmont Conference)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 미술관 아키비스트, 사서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미술관 아카이브의 중요성 및 아카이브 구축, 보관, 접근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 미술관 아키비스트라는 직군에 대한 인식을 기록학계에 각인시켰다.

이후 기관 역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 미술관 관리를 위한 현대화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1960-70년대 미술관 분야에서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점차 미술관 조직 구조는 세분화되었고 이에 따른 기관 인프라 및 운영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큐레이터의 역할 역시 분업화되면서 미술관 직군 역시 특수화되었고 이러한 환경에서 미술관 전문 아키비스트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 시기 SAA에서는 1981년 미술관 아카이브 임시조직(task force)을 승인 하였고 기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단체와 협업하였으며 1984년 관련 지침을 개발하고 배포 하였다. 그 해 미술관 아카이브에 특화된 기술과 전략을 다루는 첫 출판물인 윌리엄 다이스(William Deiss)의 『미술관 아카이브: 입문(Museum Archives: An Introduction)』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4년 데보라 위스(Deborah Wythe)가 편집한 『미술관 아카이브: 입문』 2권이 출간되었는데 이전 버전보다 미술관 아카이브 운영 전략 수립, 관리 등의 여러 측면을 확장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1986년 6월 미술관 아카이브 임시조직은 해체되었고 미술관 아카이브 라운드테이블(8월)이 시작되었으며 이 결과물이 출판물로 배포(12월)되었다. 결국 1990년 미술관 아카이브 분과가 출현(9월)하였고 1991년 내규를 제정하였다. 2010년부터는 미술관 아카이브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술 아카이브 표준 및 모범사례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매년 새로운 주제로 사례를 공유, 토론하여 이를 기록화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공개하고 있다(Chatalbash, Hernandez, & Schwenke, 2022). 이후 도서관, 아카이브 분야의 전문적 융합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2008년 미국 텍사스 대학의 메건 윈젯(Megan Winget)은 학제적 수집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서관과 기록관과 박물관이 융합된 라키비움(Larchiveum)을 제안하였다. 2015년 SAA 미술관 아카이브 분과에서도 갤러리,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GLAM) 메타데이터 통합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2018년에는 아카이브 전문화, 문서화, 컬렉션 관리, 전시에 관한 전문가와의 접근 방식을 고려한 연구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Chatalbash, Hernandez, & Schwenke, 2022).

이와 함께 SAA 미술관 아카이브 분과에서는 미술관 아카이브 주요 전문인력을 Archives Assistant, Associate Archivist, Digital Archivist, Records Manager, Processing Archivist, Archivist, Senior Archivist, Archives Director 등 8개의 직렬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정의, 역량, 자격요건 및 우대 사항 등을 기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미술관 아카이브 전문인력의 대다수 공통적인 자격요건은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인증 문헌정보학 석사(MLS, Master of Library Science)를 전공하고 기록관리학 수업을 이수하거나 기록관리학을 전공해야 하며 직렬마다 다르지만,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아카이브 실무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카이브 정리, 기술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 DACS(Describing Archives: A Component Standard),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 등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원활한 조직력, 세부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집중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 관계 등의 기술이 탁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대사항으로는 미술관 실무의 경험, 미술 관련 분야 지식 또는 전공 및 각 기관의 미션, 정책에 부합하는 관련 지식 등이 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SAA 미술관 아카이브 분과를 중심으로 미술관 아키비스트가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요한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전문 직군과 함께 미술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협력을 통해 단체를 설립하여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연구 및 현황들을 공유하여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연구결과물로 출간하여 공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문화유산을 향유 하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미술 아카이브의 실무적인 내용, 운영, 제도,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발표되면서 미술 아카이브는 기록관리에서 독립적인 특수한 분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학문적 성장을 촉진했으며 전문적인 논문, 도서 등의 출판은 미술관 아카이브 분과 독립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SAA에 제시된 미술관 아카이브 주요 전문인력 직렬 정의 및 자격 조건

직렬	직렬 정의 및 역량	자격요건	우대 사항	출처
Archives Assistant	(BHS) - 물리적 정리 지원, 미술관 컬렉션 평가  (CMA) - 도서관 기록관 정책에 따라 수집된 기록 정보 제공 및 연구자 지원	(BHS) - 문헌정보학 석사 과정 내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이수 - 아카이브 정리, 기술 관련 내용 숙지 및 MARC, DACS 관련 지식 - 조직, 시간 관리 능력 및 정확성과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및 독립적인 팀원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CMA) - 미술사 관련 분야 학사 학위 또는 연구 학술기관, 도서관, 기록관 최소 2년 근무 -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능력, 의사소통, 작문, 대인 관계 기술 탁월 및 조직 능력	(BHC) - Archivists' Toolkit 사용 및 기술 경험 - 브루클린 역사 관련 지식 및 관심	Brooklyn Historical Society (BHS), Cleveland Museum of Art(CMA), 2013
Associate Archivist	- 기록을 보존하고 접근 가능하게 함 - 기관 내·외부 연구자에게 기록 정보서비스 제공 - 기록 전시, 기획, 연구, 디지털화 프로젝트 및 기록관 정책 개발 지원	- ACA 인증 또는 ALA 인증 문헌정보학 석사(MLS) 기록관리학 전공 또는 최소 1년 이상 기록 기술 경험자 - MARC, DACS, EAD, AACR2, LCSH 관련 지식	- 미술사 관련 지식 - 프랑스어, 독일어 독해 가능	SAA Museum Archives Section Working Group Example
Digital Archivist	-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팀에서 근무, 문서 및 시청각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보정 - 웹 또는 전시회에서 사용될 음성 녹음 편집, 디지털 관련 기록정보 서비스	- ALA 인증 문헌정보학 석사(MLS) 전공 - 스틸이미지에 대한 ANSI/NISO 관련 지식 및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기록 코덱 관련 지식 - MARC, DACS, AACR2r 관련 지식 - 원활한 조직력 및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필요	- 미술 관련 학사 전공 - 미술관 경험 - Adobe Photoshop 사용자 - LC 전거 파일 ULAN, VRACore, CDWA, Getty vocabularies 관련 지식	SAA Museum Archives Section Working Group Example

Records 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기록 프로젝트팀에서 근무, 기록보존일정을 기관 전자기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기록 감사증적을 수행하고 기록 관리 프로그램 준수,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A 인증 문헌정보학 석사(MLS) 전공 또는 최소 2년 이상 기록관리 경험 및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이수</li> <li>-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OAIS 참조 모델 및 기록관리 원칙과 방법론 관련 지식</li> <li>- MARC21, DACS, EAD, 미술사 관련 지식</li> <li>- 의사소통 및 조직 능력 탁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공학 또는 경영 학사 전공</li> <li>- 법률 사서</li> <li>- 미술관 근무 및 이메일 보존 관련 경험</li> <li>- VRACore, CDWA, Getty vocabularies 관련 지식</li> </ul>	SAA Museum Archives Section Working Group Example
Processing Archiv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기록 및 기관기록 정리, 기술 및 재배치</li> <li>- MARC 기록을 OCLC WorldCa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li> <li>- 웹 사이트 디자인 및 구현을 위한 부서별 디지털 콘텐츠 관리자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A 인증 문헌정보학 석사(MLS) 기록관리학 전공 또는 기록 분야 내 역사학 석사 전공</li> <li>- MARC21, DACS, EAD, AACR2r, LC 전거파일, ULAN 관련 지식</li> <li>- 작문 및 조직 능력 탁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사 관련 지식</li> <li>- 미술관 경험</li> <li>- MARC, EAD 사용 가능</li> <li>- 수집기록 및 기관기록 처리 실무 경험</li> </ul>	SAA Museum Archives Section Working Group Example
Archiv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귀도서, 수집기록, 기관기록을 수집, 정리, 목록화하여 유지·관리</li> <li>- 기록 평가 및 폐기 요청</li> <li>- 목록화 우선순위를 설정</li> <li>- 지속적인 표준 마련</li> <li>- 기록정보서비스 지원</li> <li>- 소장컬렉션 홍보 자금 마련 지원</li> <li>- 자원봉사자, 인턴 교육 및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A 인증 문헌정보학 석사(MLS) 전공 또는 기록학 전문 학위 또는 최소 3년 이상 기록 및 컬렉션 정리, 기술 경험자</li> <li>- MARC, EAD 사용 가능</li> <li>- 탁월한 작문, 의사소통 기술 및 독립적인 팀원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li> <li>- 기록의 일관성, 고품질 제공을 위한 고도의 집중력, 세부사항 등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조직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록화를 위한 코네티컷(Connecticut) 또는 뉴잉글랜드 역사 관련 지식</li> </ul>	Connecticut Historical Society, 2013
Senior Archiv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관 소장 미정리 기록 정리, 기술</li> <li>- Archivists' Toolkit을 사용하여 DACS에 따라 EAD 검색도구를 생성하여 기록을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li> <li>- 인턴 및 프로젝트 직원 관리·감독</li> <li>- 매월 1회 기록정보서비스 지원 및 할당된 기타 책임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목록화 과정 이수 및 문헌정보학 석사(MLS) 기록관리학 전공</li> <li>- 목록화를 위한 미국 역사에 대한 지식</li> <li>- MARC, DACS, EAD, AACR2 사용 가능</li> <li>- 검색도구를 통한 정리, 기술 가능</li> <li>- 효과적인 작문, 의사소통 기술 및 독립적인 팀원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li> <li>- 조직 및 시간 관리 능력 및 정확성과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학 학사 전공</li> <li>- 문헌정보학 석사(MLS) 후, 2-3년 실무 경험</li> <li>- 큐레이터, 전시 등의 유사 실무 경험</li> <li>- 법적 절차 및 용어에 대한 지식</li> </ul>	Brooklyn Historical Society, 2017
Archives Dire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 관련 수집기록 및 미술관 기록 평가, 획득 관리</li> <li>- 다양한 매체와 형식의 영구기록물 정리, 기술, 보존 감독</li> <li>- 컬렉션 기술, 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및 아카이브 표준 개발</li> <li>- 기록 관리 프로그램 운영, 부서별 목표 개발 및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A 인증 문헌정보학 석사(MLS) 전공 또는 7-10년 아카이브 경력</li> <li>- 미술관 운영 및 미술사에 대한 지식</li> <li>- 보존, 폐기 일정 관련 지식</li> <li>- Dublin Core, MARC, ISAD(G), DACS, EAD 등의 표준 지식과 적용 능력 탁월</li> <li>- 3,600 linear feet 기록관리 능력</li> <li>- 작문, 언어 및 대인관계 기술 탁월, 집중력, 세부사항 등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li> <li>- 기관 조직 운영 및 직원 감독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 경력</li> </ul>	SAA Museum Archives Section Working Group Example

## 2.2 국내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쟁점 및 현황

국내 미술 아카이브는 1980-2000년대까지 주로 미술자료실에서 관리되었다. 1981년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개관을 시작으로 ‘자료’라는 용어는 1984년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한국근대미술자료전(韓國近代美術資料展)》(1984. 12. 4. - 1984. 12. 30.)을 통해서 대중 앞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 전시는 사료적 가치가 큰 자료들을 발굴하여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한국 근대미술의 실상과 변천사의 증거를 새롭게 조망하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

되었다. 초기 계획대로라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정책 변경의 이유로 1980년대 마지막 자료전이 되었다. 이후 1997년 5월 스미소니언(Smithsonian Institution)의 앨런 베인(Alan Bain)이 「세계박물관의 날」 일정에 맞춰 내한하였고 국내 처음으로 미술관 아카이브를 소개하는 강연을 하였다. 1998년에는 부산시립미술관에 자료실이 개설되고 1999년 삼성미술관 리움(LIUM)의 부설인 한국미술기록보존소(이하 기록보존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기록보존소는 리움미술관 자료실 소속, 국내 미술 아카이브의 첫 사례 기관으로 모(母)기관의 성격에 맞춰 한국 근·현대 미술기록을 수집하고 영구보존하며 한국 미술과 미술사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4만여 권에 이르는 미술평론가 이구열 컬렉션 구축 및 1998-2009년 주제별 구술사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녹취문집』, 한국 근대미술 관련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발간 및 미술관 내·외부 전시에 기록을 대어 하기도 하였다(김철효, 2009). 그러나 2-3명으로 운영되던 기록보존소는 2010년대 초반부터 아카이브 인력이 축소되면서 그 기능은 약화되었고 현재 사서 1인이 미술자료실을 관리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국외 미술 아카이브 사례조사를 토대로 국내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 도입을 위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김기현, 2000). 이 시기 김달진(2012)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립미술관(2002), 경남도립미술관(2004), 광주시립미술관(2007), 경기도미술관(2008) 등 지역 공립미술관에서 미술자료실을 차례로 개관하였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미술 기록보다는 도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사서 1명이거나 학예연구사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부수적인 업무로 자료실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자료 담당자가 1-2년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부족한 인력난을 비정규직 또는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고 있는데 향후 미술과 정보학을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미술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김달진, 2009). 2005년에는 작가 지원의 일환으로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수렴한 아카이브 중심 공간인 인사미술공간(이하 인미공)이 마련되었다. 인미공에서는 임민옥과 프레데릭 미송(Frederic Michon)이 결성한 피진 콜렉티브(Pidgin Collective)와 함께 아카이브 지향점과 자료의 기초목록을 작성하였는데 피진 콜렉티브는 활동적·역동적 아카이브, 급진적 프로젝트의 출현을 도모하는 아카이브, 작가와 연구자의 도발적 협업이 가능한 아카이브, 느슨하고도 간헐적인 네트워크를 기대하는 아카이브를 매니페스토로 하였다. 결국 인미공의 모든 전시, 토크, 워크숍, 스크리닝, 공연은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시작되고 다시 아카이브로 흡수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아카이브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카이브에 관한 작가의 관점과 해석이 개입된 인미공 아카이브는 2009년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로 이관되기 전까지 동시대 미술 작가 포트폴리오, IAS(InsaArtSpace) 미디어, 2005-2008년 『볼』 발행, 전시, 워크숍 등의 활동을 했다(백지숙, 2018). 이러한 인미공의 유희적인 아카이브의 개념은 미술계에 영향을 미쳤으며(안지숙, 2019) 이로 인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술 아카이브를 방법론으로서 활용한 전시, 출판, 학술 세미나 등이 점차 확산되었다. 2008년에는 백남준아트센터 내 도서관과 아카이브가 통합된 자료실이 개설되었고 2009년 문헌정보학을 이수한 아카이브 전담 아키비스트가 채용됨에 따라 기록학의 기본 원칙인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에 따라 미술기록을 정리하고 집합적·계층적 기술을 수행하기에 이른다(백남준아트센터 담당자 인터뷰, 2023. 9. 4.). 2013년 10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과천), 2014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실(서울)이 개설됨에 따라 기존에 관리되던 미술자료실과는 별도로 미술기록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7명이 확충되었으며 기존 미술기록 담당 인력 2명을 합쳐 총 9명이 미술 아카이브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이 가운데 미술과 기록관리 분야 두 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약 30%이었다. 또한 운영 및 시스템 측면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카이브는 기록물 관리기구를 실제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이전에 미술 분야의 논의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특히 미술관에서 생산된 기록인 미술관 기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록학과의 접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호신, 2018). 그 밖에도 인력 측면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담당 인력이 타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확보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공개된 미술 아카이브 보유량이 33만여 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조민혜, 2021).

또한 2013년에는 김달진미술연구소, 미술과 기록관리 분야 연구자, 실무자가 주축이 되어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가 설립되었고 2014년부터는 미술관아카이브 분과, 아카이브전시 분과, 학술분과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까지 활발하게 운영되다가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후 2020년부터 서울, 대구, 부산 지역 등의 공립미술관에서는 기록을 관리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역미술관 아카이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 지역 공립미술관은 도서와 미술기록을 1인이 담당하고 있지만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2023년 4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가 개관되면서 4만 6천 건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인력 3인(기록연구사 1인, 기간제연구원 2인)과 전시, 연구 프로그램 실행 및 운영 인력 11인(학예연구사 5인, 기간제연구원 3, 뉴딜 3인)이 배치되었다(서울시립미술관 담당자 인터뷰, 2023. 9. 7.). 더불어 부산시립미술관은 2022년 소장품자료관리팀이 처음으로 신설됨에 따라 미술기록 담당 학예연구사 3인이 추가 인력 배치되면서 미술기록 4만 6천여 점을 전담 인력 5인이 구축하게 되었다(부산시립미술관 담당자 전화 인터뷰, 2023. 8. 22.).

이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2019년부터 기록관리 환경 및 미술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법론이 부재한 지역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아카이브 구축 협력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운영상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인력 부족 개선을 위해 1년에 약 5-7개월 동안 미술기록을 전담할 수 있는 아키비스트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워크숍을 통해 미술관 아카이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이나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조민혜, 2021). 2019년 시범 사업 당시 1개의 기관을 지원하였는데 공립미술관 수요로 인해 2020년 사업부터는 6개 기관, 2021년 8개 기관, 2022년 8개 기관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가 2023년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3개 기관으로 축소되었다(문화교류연구소 담당자 전화 인터뷰, 2023. 8. 21.). 이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2015-2022년까지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모형식의 지원 사업으로 연구팀과 작가가 매칭되어 연구팀이 지원한 후, 주최 측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약 1-3년에 걸쳐 기획자, 아키비스트, 연구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국내 미술계 원로작가의 화업 전체를 연구하고 정리하여 기록화하고 이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온라인상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총 30인의 작가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근·현대 미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한국 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22년 시범(파일럿)으로 시행하고 있는 「2022 아르코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팀과 작가가 매칭되어 공모에 지원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 사업은 약 1-2년에 걸쳐 기획자, 아키비스트, 연구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한국 현대미술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고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조사, 연구하여 카탈로그, 리플릿, 브로슈어 등의 연구결과물을 무료 배포가 용이한 e-PUB, e-book, PDF의 디지털 형태로 발간하면 향후 결과물은 작가의 차기 창작, 전시, 학계 심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의 인력 구성 기준을 살펴보면, 책임연구원이 아키비스트일 경우, 기록관리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유사 프로젝트 경험자로 자격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사업은 원로작가 화업 전체에 걸쳐 파생된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목록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주최 측의 시스템을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에 주력하는 프로젝트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아키비스트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없고 주된 업무가 조사·정리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연구, 비평과 책 출판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아키비스트의 역할보다 이론, 비평가, 기획자의 연구영역에 비중이 할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서 아키비스트는 작가 이력, 작품 목록 및 연보 등을 충실히 정리하여 기획자,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매개자로서의 역할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헌연구와 현황조사를 위한 실무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국내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쟁점 및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인력의 부재 및 양성의 어려움이었다. 기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술기록 담당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다가 인력 및 예산이 배정되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이들이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미술기록에 대한 현장 경험 없이 미술 아카이브를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더라도 단발적인 프로젝트 형식으로 인력을 지원하기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계에 속한 작가, 평론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수행하는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산하고 수집된 기록물로 기관이나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도 존재하지만 개인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기록물 보다 다양한 매체와 형식의 기록물이 존재함으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은 이를 다룰 수 있는 미술 및 기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며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결국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러한 인력은 미술 또는 기록관리 분야에서 소수의 인력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양성의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국내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

#### 3.1 연구대상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및 정책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를 중심으로 미술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론을 채택하였다. 근거이론은 질적연구방법의 하나로 자료에서 얻어진 분석적 범주의 특정화를 통해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즉, 근거이론방법론은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 의해 형성된 과정, 행동,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론의 개발은 실천을 설명하는 것을 돕거나 후속 연구를 위한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유기웅 외, 2018). 이에 본 연구는 미술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 및 기록관리 전문교육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피면담자의 실무 현장의 경험, 행위 등을 이해, 해석하고 이를 근거이론방법론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면담 참여자와의 심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미술 아카이브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국내 미술 아카이브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양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22)에 제시된 미술자료실, 도서실이 단독으로 설치된 기관 52곳 중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한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부산 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의 실무자, 정책 관련 실무자, 교육 관련 연구자를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확보하고 일대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면담자는 총 9명으로, 10년 이상의 미술 아카이브 경력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실무자 3인, 기록연구사 1인, 미술 아카이브 인력, 예산, 창직 등의 정책, 제도를 수립한 실무자 3인, 기록관리 전문교육 과정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연구자 2인이다. 인터뷰 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징은 <표 2>와 같다.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명, 여자 8명이며 연령별로 30대 2명, 40대 3명, 50대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공 및 연구영역은 미술사·예술학·예술경영 등의 미술 관련 분야 3명, 문헌정보학·기록관리학 분야 2명, 미술 관련 분야·기록관리학 분야 2명, 역사학·문헌정보학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사 과정 졸업자가 6명이었다. 참여자별 업무 근무 경력은 미술 아카이브 실무 현장 및 기록관리 전문교육 과정에서 최소 6년에서 최대 29년으로 나타났다.

<표 2> 심층 인터뷰 참여자 일반적 인적 특성

번호	구분	성별	연령	소속기관	직위	주요 업무	근무 경력	최종 학력	연구영역 및 전공	면담일자
1	A1	여	50대	미술관	아키비스트	아카이브 연구, 운영, 기획 등	15년	박사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2023. 9. 4.
2	A2	여	30대	미술관	아키비스트	수집기록 구축 및 활용 등	10년	석사	미술사, 기록관리학	2023. 9. 5.
3	A3	남	30대	미술관	기록연구사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 기관자료 수집 등	6년	박사 과정	역사학, 기록관리학	2023. 9. 7.
4	A4	여	40대	미술관	아키비스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등	11년	석사	예술학, 기록관리학	2023. 9. 27.
5	B1	여	50대	미술관	관장	예술학 관련 강의, 교육프로그램 총괄, 비엔날레 감독 등	29년	박사	예술학	2023. 8. 29.
6	B2	여	50대	대학교	교수	학예 연구, 미술관 운영, 학생 교육, 연구 등	23년	박사	미술사학	2023. 11. 11.
7	B3	여	40대	정책기관	부연구위원	정책 연구 등	15년	박사	문화예술경영	2023. 9. 19.
8	C1	여	40대	대학교	교수	아카이브 관련 업무, 학생 교육, 연구 등	14년	박사	역사학, 기록관리학	2023. 11. 15.
9	C2	여	50대	대학교	교수	학생 교육, 연구 등	28년	박사	문헌정보학	2023. 12. 1.

### 3.2 데이터 수집

심층면담은 2023년 8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에 준비한 4개의 대범주로 구성된 질문지를 토대로 피면담자 반응에 따라 질문의 가변성을 일부 허용하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사전 질문은 <표 3>과 같이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를 위한 4개 영역, 총 10개의 질문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전 질문 이외의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 및 주제에 따른 심층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1인당 약 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면담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피면담자의 표현 방식과 내용을 최대한 살려 전사하여 이를 연구 분석의 원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별로 1차, 2차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1차 인터뷰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관한 인식과 가치, 운영 방안,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양성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조사하였다. 2차 인터뷰는 일부 피면담자를 대상으로 서면, 유선으로 진행하였고 1차 인터뷰 결과를 정리, 종합한 내용을 피면담자들에게 공유하고 재확인하면서 일부 추가된 내용은 재반영하였다. 해당 인터뷰 인용 시 <표 2>의 면접 대상자 구분 형식에 따라 ‘피면담자 A1’ 등으로 표시하였다.

<표 3> 심층 인터뷰 질문지 구성 및 세부 항목

번호	인터뷰 영역	영역별 인터뷰 세부 항목	문항수
1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관한 인식과 가치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의 현황 문제점 및 원인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의 필요성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세분화할 경우, 창직이 진행될 수 있는 영역 및 이에 따라 요구되는 핵심역량	4
2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운영 방안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개선방안	2
3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 정책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위한 활성화 방안	2
4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기대효과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에 따른 기대효과 - 피면담자 소속된 기관·대학 내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등의 향후 사업 진행 계획	2
총합	4개 영역		10

### 3.3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국내 미술 아카이브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 아카이브를 전담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거이론방법론은 복잡한 현상과 이에 대한 인과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등을 공식화하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정교한 분석틀로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김효선, 김지현,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론의 연구절차에 따라 이론적 표본을 추출하고 수집된 정보들을 비교하고 범주화하여 자료의 분석적 비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후 자료를 주요한 정보의 범주로 코딩하였는데 개방코딩을 시작으로 축코딩을 통해 패러다임을 개발하였다. 먼저 개방코딩을 통해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여 개념화된 자료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심현상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뷰 녹취록을 검토하면서 줄 단위로 내용을 분석하여 추상적인 의미 단위로 개념화시키고 도출된 개념들을 대표적인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복수의 하위범주를 엮어 추상적이고 대표성을 지닌 상위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개방코딩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57개 개념과 27개 하위범주, 13개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후 개방코딩에서 생성된 범주들을 하위범주에 연결시키는 과정인 축코딩을 통하여 개방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해체되고 분해되었던 원자료들을 재조합하였다. 이렇게 개방코딩에서 생겨난 범주를 Strauss와 Corbin(1998)에 근거하여 ① 인과적 조건, ② 맥락적 조건, ③ 중재적 조건, ④ 행위/상호작용, ⑤ 결과로 유형화하고 <그림 1>과 같이 패러다임 모형에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 모형

### 3.4 연구 결과

근거이론 분석을 통해 도출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의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3.4.1 중심현상: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

중심현상이란 분석영역에서 나타난 일련의 작용, 상호작용 전략 또는 일련의 관계 작용들에 대한 중심생각이나 사건들로 수집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현상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에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표 4>와 같이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로 나타났다.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수요건이며 이를 통해 예술 작품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의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4> 중심현상의 범주와 개념

패러다임 요소	범주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중심현상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	미술 아카이브 체계적 수집 및 관리 인력 필요	예술의 형식 다변화에 따른 예술가의 활동 범위 확대 예술가의 작품 형식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 아키비스트 영역 고도화 요구에 따라 예술가의 협업자로 성장
		예술 작품에 대한 다각적 이해 가능	작품에 관한 작가의 의도 및 작품 제작 시 발생한 시대상, 사회상 등에 관한 구체적, 다각적 이해 가능

인터뷰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예술의 형식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예술가의 활동 및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점차 예술가의 작품 형식에 있어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었다고 보았다. 최근 예술가의 협업자로 아키비스트가 등장함에 따라 아카이브 전문인력 역시 고도화된 요구에 부합된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술가 작품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달라졌을 때 이 예술가의 형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예술의 유형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키비스트라고 생각합니다.”(피면담자 B1)

또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예술 작품에 관한 작가의 의도 및 작품 제작 시 발생한 시대상, 사회상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국과 같이 굴곡이 많은 역사가 있는 나라의 경우, 작품만으로는 네러티브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카이브는 정말 필요한 건 거고. 현대 작가들 같은 경우, 작가는 작품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인이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담기는 경우도 있고 작품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이 작가의 작품과 의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를 통해 작가 연구라든가, 그 당시의 시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 자체가 필수 불가결한 게 된 것 같아요.”(피면담자 B2)

### 3.4.2 인과적 조건: 물리적 제반시설 확충 및 인식 제고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발전을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주요 요인을 말한다(유기웅 외, 2018).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와 관련한 인과적 조건은 <표 5>과 같이 물리적 제반 시설 확충 및 인식 제고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 아카이브 전담 공간이 확충되면서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표 5> 인과적 조건의 범주와 개념

패러다임 요소	범주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인과적 조건	물리적 제반 시설 확충 및 인식 제고	미술 아카이브 전담 공간 확충	국공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자료실과 별도로 물리적 공간 마련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필요성 제기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

인터뷰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국공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자료실과 별도로 미술 아카이브 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인력을 채용하는 기관 소속 아카이브가 개설됨에 따라 미술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물리적인 제반 시설과 장비 마련은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았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미술연구센터, 2014년 서울에 디지털정보실을 시작으로 2022년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소장품자료관리팀이 신설되어 그 팀 안에 아카이브 신규 인력이 채용되었어요. 올해 4월에는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서울시립아카이브가 생겨나면서 대중들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피면담자 A4)

### 3.4.3 맥락적 조건: 전문인력에 관한 인식 변화 및 필요성 증대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수한 구조적 조건으로 인과적 조건에 의해 중심현상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말한다(유기웅 외, 2018).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와 관련한 맥락적 조건은 <표 6>과 같이 전문인력에 관한 인식 변화 및 필요성 증대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자격 조건, 역량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 및 업무 영역 등의 구체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6> 맥락적 조건의 범주와 개념

패러다임 요소	범주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맥락적 조건	전문인력에 관한 인식 변화 및 필요성 증대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	미술 분야 전문인력 암묵지와 전문성 추구에 대한 준중 필요 미술 아카이브 중요성에 따른 전문인력 필요성 및 관심 증대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강화	다수의 인력을 양산하는 것보다 고도의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필요
		전문인력 자격 조건, 역량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 및 업무 영역 구체화	미술 아카이브 관리,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및 정보화 정책 등 기초 연구 수행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직군별 업무 영역 구체화 필요 인증된 자격 제도 내에서 역량을 충실하게 발현할 수 있는 토양 마련

인터뷰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술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암묵지와 전문성 추구에 대한 준중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시점에서 미술 아카이브 중요성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어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격 조건을 높이면 어떤 분들은 확산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물론 수요도 잡아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분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여 본인 개인의 암묵지와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입한다고 생각해요. 그 전문성은 분명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프로페셔널리즘에 바탕을 두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면담자 B3)

더불어 다수의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것보다 고도의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미술에 대한 소양, ② 기록이나 정보 관리를 위한 역량, ③ 디지털화 시대에 따른 보존, 활용 등에 필요한 IT의 전문 지식, ④ 법적인 활용을 위한 법에 관한 전문 지식, ⑤ 조직 내 기록의 역할에 관한 거시적인 관점, ⑥ 총체적으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정보를 유형화하여 큐레이션 하는 역량, ⑦ 전문가 등 여러 대상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 ⑧ 기록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와 윤리 의식 등을 들 수 있다.

“답다운 방식으로 만들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미술 분야는 특정한 유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인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허들을 낮춰서 이커비스트를 많이 양산하는 건 (부정적이에요).”(피면담자 B3)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은 미술, 예술에 대한 소양이 가장 중요하고 기록, 정보 관리의 역량이 수반되어야 하고 총체적으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면서 정보를 유형화하고 큐레이션하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결국 미술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활용을 염두한 예술 전공자들의 관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피면담자 B1)

결국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술 아카이브의 전문인력이 정착되려면, 인증된 자격 제도 내에서 역량을 충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인력의 직군별 업무 영역을 구체화하여 공공분야의 주요한 직군으로써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미술 아카이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표준화, 정보화 정책 등의 기초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직무 중심으로 직업군이 나와 있어 대부분이 명명되는데 국내 예술계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명명되지 않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국외의 경우, 전문영역으로서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 명명 하에서 커리어 패스를 잡는데 한국은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직급 중심으로 부르고 조직 내에 들어가면 통일된 직급으로 되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일단 명명 짓고 그거를 제도화해서 그 요원이 적어도 공공분야의 주요한 일을 하는 것까지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키는 게 목표죠.” (피면담자 B3)

#### 3.4.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작용 전략에 필요한 구조상의 요인이나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와 관련한 중재적 조건은 <표 7>과 같이 미술 아카이브 개념 미정립, 운영시스템 문제, 정책 방안, 교육시스템 부재로 나타났다.

<표 7> 중재적 조건의 범주와 개념

패러다임 요소	범주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중재적 조건	미술 아카이브 개념 미정립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개념 미정립	큐레이터 이외의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낮음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직군에 대한 개념 및 업무 영역 혼재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자격요건 부재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조건 및 기준 모호 예술계 전반 자격 제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보다 학위 인플레로 대체
	운영시스템 문제	현업 일자리 부재	미술 아카이브 실무 적용 현업 일자리 부재
		고용 형태 및 인력 조직 구성 문제	정규 인력보다 계약직 등의 단편적 인력 채용 빈번 공예, 건축, 뉴미디어, 디지털 등의 아카이브 세부 분야 전문인력 부족
		미술 아카이브 운영 예산 부족	기본 예산 설정 부재 및 예산 감액에 따른 미술 아카이브 운영 예산 부족
	정책 방안 부재	미술 아카이브 관련 제도, 법 부재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성립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정책적 당위성 필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협업 체계 부재	유관 기관과의 소통 및 협업 체계 구성
	교육시스템 부재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관련 교육시스템 부재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 및 공공부문의 교육프로그램 부재 전문인력 양성 훈련 과정 후 실무 현장 배치 미흡

### 3.4.4.1. 중재적 조건: 미술 아카이브 개념 미정립

인터뷰 결과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의 장애 요소 첫 번째는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 미정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아카이브 및 전문인력의 개념 미정립과 전문인력 자격요건 부재 등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개념 미정립에 대하여 미술계에 아카이브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최대 20명 미만의 소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술계 전반적으로 큐레이터 이외의 전문 직군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큐레이터가 아카이브 업무를 경험으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큐레이터 이외의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내부의 큐레이터가 배워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팽배하죠.”(피면담자 A1)

“학예사들은 자신이 에듀케이팅, 아카이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자격 조건을 높이는 거죠.”(피면담자 B3)

또한 미술 아카이브는 정확한 기록을 적시 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전문 공간이 설계되었을 때, 전문인력은 아카이브가 유통되는 방식을 예측하고 그 디렉토리 안에 어떠한 콘텐츠를 구축할 것인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접근이 되지 않는 아카이브에 관하여 고민해야 한다(피면담자 B1)고 보았다.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아카이브 전시와 같이 아카이브 일부만을 차용하여 전시하는 행태는 아카이브 개념의 부재에 따른 본질 왜곡의 결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부재는 전문인력의 업무 영역이 혼재되는 양상을 빚었고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이 전시영역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술 아카이브의 전시 부문에 치중하게 되었다(피면담자 A2)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업무 영역의 혼재가 아카이비스트 직군의 전문영역을 와해시키게 된 것이다.

“최근 아카이브 전시처럼 아카이브를 사용하는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전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중략) 아직 아카이브라고 하는 개념이 충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카이브를 만들고 아카이비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런 식으로 완전히 본질을 왜곡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아카이브는 저렇게 보여야지만 성공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오해, 왜곡의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로 서비스되는 걸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보러 갈 수 있는데 이걸 뭇가라는 생각이 듭니다.”(피면담자 B1)

“전시도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아카이브 전문인력이 전시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큐레이팅 전문인력이 아카이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이도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피면담자 A1)

둘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술 아카이브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자격 조건 및 기준 등이 모호하며 예술계 전반 자격 제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보다 학위 인플레로 대체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전문인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자격을 인증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이론과 기록학 관련 전공 및 인증기관에서의 2년 이상 경력 등으로.”(피면담자 A2)

“어떤 자격 제도랑 연동되는 거 그리고 그 자격 제도를 따는 과정에 충실성이 있어야지 계속 학위 인플레로서 대체되는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피면담자 B3)

#### 3.4.4.2. 중재적 조건: 운영시스템 문제

인터뷰 결과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에 방해 요소 두 번째는 미술 아카이브 운영시스템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미술 아카이브 현업 일자리의 부재, 고용 형태 및 인력 조직 구성의 문제, 미술 및 운영 예산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술 아카이브의 실무를 적용할 수 있는 현업의 기관이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예술자료원, 백남준아트센터, 부산사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을 포함해 5곳 미만이라고 언급하면서 소수의 기관만이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상황이라 기관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기록관리라는 게 아카데미 필드도 있지만 프랙티스 필드가 큰 영역이고 특히 미술관의 기록관리라는 것들은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으로 현상학적으로 쌓여가는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들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반해 실무 프랙티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피면담자 A1)

둘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고용 형태 및 인력 조직 구성 문제에 대하여 정규 인력보다 계약직 등의 단편적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미술 아카이브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피면담자 A2)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지닌 미술 아카이브의 특성상, 건축, 공예, 뉴미디어, 디지털 등의 세부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양한 미술 자료의 특성상 조각, 공예, 사진 등 장르별 구분이나 근대미술과 같이 미술사조 시기별 구분 등 좀 더 세부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 채용이 필요해요. 각 전문영역의 지식이 활용되어야 좀 더 밀도 있는 정확한 구축이 가능하거든요.”(피면담자 A2)

셋째, 미술 아카이브 운영 예산 부족에 대하여 기본 예산 설정의 부재와 예산 감액에 따른 미술 아카이브 자체 운영 예산이 부족하여 아카이브의 체계적·지속적 관리가 힘들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술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지자체가 전년 대비가 아니고 기본 예산이라는 게 없고 전년 대비로 해서 계속 감액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요.”(피면담자 A1)

#### 3.4.4.3. 중재적 조건: 정책 방안 부재

인터뷰 결과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의 장애 요소 세 번째는 정책 방안의 부재로 미술 아카이브 관련 법, 제도, 전문인력의 협업 체계 부재로 나타났다. 첫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술 아카이브 관련 법, 제도의 부재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법,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성립에 대한 근거가 기록계 또는 미술계 관련 법, 제도 중에 어떤 곳에도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미흡하게 설정된 법,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미술 아카이브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법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중략) 기록관이라고 하는 영역에 미술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 박물관·미술관이 거기 안에 없다 보니까 위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해야 한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은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당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피면담자 B3)

둘째,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의 협업 체계 부재와 관련하여 미술 아카이브 영역 자체가 수요가 많지 않기에 유관 기관인 문화예술 기관 등의 단체들과 소통하고 협업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술 아카이브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학예, 미술계, 기록계 영역 쪽에 각각의 단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개별 분과들이 있을 테고 양쪽 큰 영역에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피면담자 A3)

#### 3.4.4.4. 중재적 조건: 교육시스템 부재

인터뷰 결과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의 장애 요소 네 번째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교육시스템의 부재로 나타났다. 첫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역량을 갖추기 위한 대학 및 공공부문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제도 및 기관이 부재하여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받지 않은 인력이 실무 현장에 파견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로써 공공기록보다 복잡한 형태의 미술기록을 다양한 사례연구 없이 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록 고유의 정리, 기술의 원칙이 훼손된 채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피면담자 A4)고 지적하였다.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중략) 현재 어떤 대학, 전문기관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안착되면 그 제도하에서 어떤 양성에 대한 프로세스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에 대한 책임 소재도."(피면담자 B3)

또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관한 전문적인 양성 훈련 과정이 있다면 이를 이수한 수료자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무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한 교육적인 부분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다.

" 훈련 과정이 있다면 이수 후 양산되는 친구들이 어딘가에 배치되는 것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딘가에 배치되거나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피면담자 B3)

### 3.4.5. 행위/상호작용

행위/상호작용은 어떠한 현상, 문제, 상황을 일상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다루고 조절하고 반응하는 것이다(유기웅 외, 2018).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와 관련한 행위/상호작용은 <표 8>과 같이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위한 운영 개선 방안 강구, 법, 제도, 정책 마련, 교육과정 활성화 방향 정립, 전문인력 협의체 구성으로 나타났다.

<표 8> 행위/상호작용의 범주와 개념

패러다임 요소	범주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행위/ 상호작용	운영 개선방안 강구	조직 구성 및 채용 제도 정비	조직 내 아카이브 전담 인력 구조 필요 미술 아카이브 관련 기관 확대 및 조직 확충
		예산 확보	기관별 아카이브 신설 및 인력 등 예산 확보
	법, 제도, 정책 마련	법 제도적 정비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 마련
		아카이브 조직 확충에 관한 정책 지원	전체 인력의 행정 체계에서 기록연수사 인력이 편입되어 공식적 절차를 밟아 채용 시 정규 인력 확보
			기록관리체계(민간 기록관리) 내 미술 아카이브 지원 가능 검토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위한 기구 마련
			정부 추진 디지털 콘텐츠 사업과의 연계 마련
	미술관 개관 예정 기관에 미술기록물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교육과정 활성화 방향 정립	기관별 교육 및 정책 확대	전문인력 과정 미훈련자 및 단편적 인력 파견 지양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기관 필요 대학 또는 기관 등에서 커리큘럼 개발 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시스템화하여 안정화 필요 국공립 및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대학 교과과정 내 학문적, 실천적 교육프로그램 마련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신진 인력 및 현장 경력 인력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필요
		대학 교과과정 내 학문적, 실천적 교육프로그램 마련	대학 내 예술 관련 아카이브 등의 교과목 개설 필요
			미술사 기반으로 기록관리 방법론에 따라 정보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방식이 필요함에 따라 그에 따른 커리큘럼 필요 예비전문인력 공통과목 수확 후, 각 영역에 맞는 교육과정 제안 미술 시장, NFT, 메타버스 등 현시점에 맞는 디지털 아키비스트 육성

			이용자 관점에서 정보를 서비스하는 관점에 주안점을 둔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자, 연구자 마련
			집중적·융합적 양성 프로그램 필요: 학문 및 실무 영역 강조
			대학 내 박물관·미술관 보유시, 부설 연구소와 연동하여 양성 교육 실시
전문인력 협의체 구성		실무 현장 내 교육 프로그램 설계	국공립 미술 관련 기관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발
		조직 확대 및 유관 기관 협회 결성	국외 아카이스트협회와 같은 상위 조직 주관 필요 유관 기관 협회 결성 지원 매개체 필요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 강화	기록학계와의 소통, 협업 체계 마련하여 공문화
			국공립 및 민간기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기적 세미나 개최

### 3.4.5.1. 행위/상호작용: 운영 개선방안 강구

인터뷰 결과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의 해결 전략 방안 첫 번째는 운영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조직 구성 및 채용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조직 구성 및 채용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미술 아카이브의 관심과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인력 개선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더욱이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설득해야 할 실무진들이 거시적 관점을 갖지 못하고 본인 업무 또는 전시, 출판 등의 아카이브 활용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1인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직급 아래 계약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전시 부서와 같이 세부 전공별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채용을 확충하여 전문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으로 전면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전문인력 채용 시, 전문성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 및 실질적으로 아카이브 조직에 대해 논할 수 있는 현장성과 이론적인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 인력풀의 정비도 필요하다(피면담자 A2)고 보았다.

“미술 아카이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술사가나 연구자들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정립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해서 제대로 된 직제를 뒀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를 오픈하는 거에 급급한 나머지 직제를 따지 못한 상황에서 출발한 것들이. (중략) 국현에서, 서울시립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금과옥조예요. 국현에서 그렇게 하니가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간과돼버렸어요.” (피면담자 B2)

“행정직들에게 인력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설득해야 할 실무진들이 당장 눈앞의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피면담자 A2)

둘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미술 아카이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술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근무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기관별 아카이브 신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중장기 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시책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국공립미술관에서 이를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나왔다.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근무 환경, 이를 위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해요.”(피면담자 A2)

“사람이 부족할 때는 사람 1명을 대신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중장기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인력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꼭지들이라도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들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박물관·미술관에서 중장기 계획이 나올 때 국공립 미술관에서도 진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최소한 얘기라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면담자 A3)

### 3.4.5.2. 행위/상호작용: 법, 제도, 정책 마련

인터뷰 결과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의 해결 전략 방안 두 번째는 법, 제도, 정책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의 제도적 정비와 아카이브 조직 확충에 관한 정책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법의 제도적 정비와 관련하여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및 내용이 법령, 시행령 및 기관의 규정, 규칙 등에 제도적으로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록 및 미술 분야의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 또는 별도로 미술기록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방식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먼저 기존 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기록물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조항을 마련할 것인지, 「공공기록물관리법」 내 미술 영역을 편입시켜 미술 분야 기록물관리요원 배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지로 나타났다.

“미술관을 개관하려면 학예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처럼, 미술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록물 관리 경력 혹은 기록물 관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미술관에 1명 이상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피면담자 A1)

“(학예연구사라는)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네들 걸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늘려줄 생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너서클과 주도권 경쟁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예사 영역에서 아키비스트들을 선발하기 시작하면 1-2명 T/O가 생기지만. 차라리 우회해서 기록물 쪽으로 제안을 드렸던 이유도 있어요. 미술이라고 명명하되 기록물관리요원 쪽 파이는 이미 커져 있으니까요.”(피면담자 B3)

이에 대하여 인터뷰 참여자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존 두 영역에 편입되어 법을 개정한다면 이 두 영역 모두 기존 체계가 있고 사람마다 상당한 이견이 있어 여러 동의하에 법 개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미술은 작은 영역이 아니기에 미술에 맞는 법체계 또는 지원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박미법 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시작해서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다를 거예요. (중략)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잣대를 바로 미술 아카이브에 대입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먼저 시작됐으니까 애매하다고 보는 거고. 공공은 공공대로 가고 미술은 작은 영역이 아니니까 미술에 맞게 법체계라든지 지원체가 있어야죠.” (피면담자 C1)

둘째, 아카이브 조직 확충에 관한 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전체 인력의 행정 체계에서 기록연구사 인력이 편입되어

공식적 절차를 밟아 채용 시 정규 인력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기록관리체계 안에서 민간 기록관리 내 미술 아카이브 부문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피면담자 A4)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에서 기록물관리 내 미술 분야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피면담자 B3)하는 등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위한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과 연계하거나 박물관·미술관 특화에 따른 개관 예정 기관에 미술기록물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하자(피면담자 B3)는 제안도 있었다. 그 밖에도 전문인력 과정 훈련을 받지 않은 인력의 현장 파견이나 단편적 프로젝트성 인력 파견은 지양해야 한다(피면담자 A1, A2)는 의견이 있었다.

“법령, 시행령 차원에서 혹은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전체 인력의 행정 체계에서 (기록연구사가)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채용되는 것이라 기간제 뉴딜과 같은 단편적인 인력 채용보다는 미술 아카이브 자체가 1년 만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 제도적인 것도 굉장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피면담자 A3)

“법을 아예 제정하는 건 어렵지만 행안부와 이야기해서 한 줄 넣고 지금 수요가 있고 필요한 당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내적 동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명확해졌고. 그리고 정부에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의 정책 당위는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제안해 놓은 상태예요.”(피면담자 B3)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 제도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인터뷰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와 방향을 마련하는 일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 3.4.5.3. 행위/상호작용: 교육과정 활성화 방향 정립

인터뷰 결과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의 해결 전략 방안 세 번째는 교육과정 활성화 방향 정립으로 이를 위하여 기관별 교육 및 정책 확대,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학 교과과정 내 학문적, 실천적 교육프로그램 마련, 실무 현장 내 교육프로그램 설계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관별 교육 및 정책 확대를 위하여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학, 대학원, 협회 등의 인력 양성 교육 또는 정부산하기관, 미술관, 대학들이 연계하여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또는 기관 등에서 커리큘럼 개발 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시스템화하여 안정적인 교육 창출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공립 및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을 촉구하였다.

“전문성, 전문 지식을 끌어 올려주기 위해서는 학교나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미술 관련 기관의 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학교의 전공과목 또는 전문기관들의 실무 교육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피면담자 A1)

“전문인력이 현장 실무형도 필요하지만, 현장 실무를 위한 연계 교육을 기반으로 대학에서 커리큘럼의 안정화,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하고. 대학에서 실험해보고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시스템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피면담자 B1)

둘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신진 인력 및 현장 경력 인력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신진 인력의 경우, 실무 현장 및 취업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을 통해 교육 기관에서부터 미술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신규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피면담자 A2)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장 경력 인력의 경우, 새로운 매체의 등장, 변화하는 환경 흐름에 맞춰 지속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주기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해야 하며 국제 프로젝트 및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네트워크 강화의 중요성(피면담자 A4)도 언급하였다.

셋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학 교과과정 내 학문적, 실천적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터뷰 참여자 대다수는 대학 내 예술 관련 아카이브의 교과목 개설의 시급함을 강조하였고 이 교과목은 미술사를 기반으로 기록관리 방법론에 따라 정보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방식에 따른 커리큘럼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자, 연구자의 마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예술 쪽은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교육, 연구 인프라가 아주 약하지만,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누가 가르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략) 지금 상황에서 시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분야를 메인으로 놓고 연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필요한 거죠. 연구자가 지금 있어야 나중에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피면담자 C1)

하지만 미술 아카이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영역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교과목 개설을 꼭 미술 아카이브라고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기록관리 특강, 기록관리세미나 그렇게 토픽을 잡으면 돼요. 그런데 학생들은 수요가 많아지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사실 미술관에서 미술 아키비스트를 채용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질 거고. 미술 전공한 사람들도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러 오고 이럴 텐데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미술 아키비스트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결국은 취업이 돼야지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토픽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지.”(피면담자 C2)

다음으로 전문인력 핵심역량과 연계된 미술 시장, NFT, 메타버스 등 현시점에 맞는 디지털 아키비스트 육성 및 이용자 관점에서 정보를 서비스하는데 주안점을 둔 콘텐츠 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도 중요한 지점이 될 것(피면담자 B1)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학문적인 영역 및 실무 영역을 강조하면서 실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실무 등의 실천적 프로그램 설계 및 전문인력 양성 훈련 후 실무 현장 배치의 제도화 마련이 시급하다(피면담자 B3)고 하였다. 그 밖에도 대학 내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부설 연구소와 연동하여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피면담자 B1)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실무 현장 내 교육프로그램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공립 미술 관련 기관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협력망사업과 같은 지역 순회사업을 통해 지역 내 성장 가능한 인력을 교육하고 현장에 배치(피면담자 B3)하여 전문인력 수도권 집중 현상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현장 기반의 대학생 대상 인턴쉽 또는 전문직업의 세계와 같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현장 실무를 엮어서 프로그램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고 (중략) 직업의 세계라고 미술관에 전문가 그룹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어린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에게 저런 직업도 있다는 거를 알게 하고, 그 후에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게 해서 어려서부터 꿈꿀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피면담자 B2)

#### 3.4.5.4. 행위/상호작용: 전문인력 협의체 구성

인터뷰 결과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의 해결 전략 방안 네 번째는 전문인력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직 확대 및 유관 기관 협회 결성과 협업 체계 강화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조직 확대 및 유관 기관 협회 결성과 관련하여 국외 아키비스트협회와 같은 강력한 협회 조직이 미술 아카이브 기관 전체를 주관하거나 유관 기관과 협회 결성을 지원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조직이 확대될 수 있으며 예술 분야별로 전문화된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미술 아카이브 관련 정보와 현안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굉장히 힘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나 (중략) 미술 아키비스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네트워킹도 하고 테스크포스처럼 시작을 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이게 참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거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참 안타까운거죠.”(피면담자 C2)

둘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기록학과와 소통하고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술 아카이브 현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국공립, 민간기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기적 세미나 개최 및 협회 소식지, 학술지 발간이 필요하다(피면담자 A4)고 보았다. 이를 통해 정기적 총회, 소규모 워크숍 진행, 주제 발표 및 토론을 거쳐 심층적 주제 연구가 가능하고 전문인력 인식 제고를 위한 의식 촉구 및 출판, 학술행사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협회 활동의 정기적 운영과 학회 연계를 통해 전문인력의 성장 도모가 가능하다(피면담자 C2)고 생각하고 있었다.

“협회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을 두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협회가 기록연구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잖아요. 기록관리 기관이 너무 다양해서 하나로 잘라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록연구사들이 이슈에 대해서 공론화해 보는 영역이고, 사실 공공기록이 메인이라는 한데 기록연구사라면 아마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이해를 잘하겠죠. 제 생각에는 협회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피면담자 C1)

#### 3.4.6. 결과

결과는 행위/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행위/상호작용에 의해 상황에 반응하여 결과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것이다(유기웅 외, 2018). 이에 본 연구에서 행위/상호작용 결과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표 9>와 같이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 가능, 심도 있는 연구 계기 마련으로 나타났다.

<표 9> 결과의 범주와 개념

패러다임 요소	범주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결과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 가능	미술 아카이브 지속적,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의 다변화	미술 용어 통일 및 아카이브 실무 가이드라인 정립 가능 교육, 전시, 출판 활용 단계 등의 확장된 영역에 대한 기록정보서비스 조력자 작가 화업 정리 및 작품의 프로비넌스 등의 관리를 통해 예술 시장 흐름 개선
	심도 있는 연구 계기 마련	미술사 연구 활성화	심도 있는 연구, 전시에 활용되어 특정 미술사조가 아닌 방대한 미술사 연구 활성화에 기여 작품의 새로운 맥락 접근 및 현대미술의 이해 가능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보, 지역미술사 확립 및 강화

첫째, 인터뷰 참여자들 대다수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미술 아카이브의 지속적·체계적 구축과 관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의 다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술 용어가 통일되어 아카이브 실무 가이드라인이 정립될 것이고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이 교육, 전시, 출판 활용 단계 등의 확장된 영역에서 기록정보서비스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작가 화업 정리 및 작품의 프로비넌스 등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예술 시장의 흐름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피면답자 A4)이라고 예상하였다.

“전에는 연구자들의 연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카이브였다면 요즘은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시하면 꼭 아카이브 섹션이 조금씩이라도 다 들어가게 되었고, 교육에서도 재료로 많이 활용되고.”(피면답자 A1)

둘째, 인터뷰 참여자들 대다수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심도 있는 연구의 계기가 마련되고 미술사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미술사조가 아닌 방대한 미술사 연구가 활성화되어 심도 있는 연구 및 전시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작품의 새로운 맥락적 접근 및 현대미술의 이해가 가능하며 지역 미술관에도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이 확충된다면, 이는 지역 작가의 기록 보존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며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확보됨에 따라 지역미술사 확립 및 강화까지도 연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원화된 미술계의 언어로의 확장이자 문화 향유 기회 확장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본 연구는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구축을 위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론 중 근거이론방법론에 따라 미술 아카이브 및 정책 관련 실무자와 기록관리 연구자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영역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57개 개념과 27개 하위범주, 13개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와 예술 작품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며 최근 국공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 자료실과는 별도로 기관 소속 아카이브가 개설되는 등의 환경의 변화가 미술 아카이브에 관한 관심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 미정립, 운영시스템 문제, 정책 방안과 교육시스템의 부재 등이 미술 아카이브 활성화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 아카이브 운영 개선방안 강구,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을 위한 법, 제도, 정책 마련, 교육과정 활성화 방향 정립 및 전문인력 협의체 구성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터뷰 참여자들은 법의 제도적 정비와 관련하여,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및 내용이 법령, 시행령 및 기관의 규정, 규칙 등에 제도적으로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전체 인력의 행정 체계에서 기록연구사 인력이 편입되어 공식적 절차를 밟아 채용 시 정규 인력으로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이러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해소되면 대학 또는 유관 기관과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 근거와 방향을 마련하는 일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거 20여 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아카이브를 준비할 수 있기에 미술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전시, 출판, 행사의 형태로 아카이브를 흡수하는 구조도 중요하지만, 미술 아카이브는 기본적인 환경과 시스템이 전제된 이후 전문적인 인력들에 의해 순차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미술 아카이브에 있어서도 해당 시스템의 구축을 넘어 그것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문제로 회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미술 아카이브 전제조건인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미술관 내 미술 전문 아키비스트가 전문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초 연구로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향후 미술계를 구성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등의 전문인력 및 미술 전공자들의 관점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주연, 김태영, 배성중, 이승채, 오효정 (2019). 국내 기록관리학 교과목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2), 25-50. <http://doi.org/10.14404/JKSARM.2019.19.2.025>
- 김기현 (2000).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 김달진 (2009). 미술자료 관리와 자료실 실태, 미술정보센터 설립. 조형 아카이브, 1, 55-91.
- 김달진 (2012). 한국 미술 아카이브의 분포 상황 및 수집여건과 과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4, 241-282.
- 김영애 (2000). 독일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 마르부르크 기록학교(Marburg Archivschule)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 195-230.
- 김영호 (2015). 한국의 뮤지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29, 23-37. <http://doi.org/10.22884/joksms..29.201512.002>
- 김영호 (2020. 7.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대로는 안된다: 범명의 문제. 한국박물관학회. 출처: <http://www.museumstudies.kr/?c=5/94&uid=1099>
- 김유승, 박지영, 박태연, 손승희, 윤은하, 이민영, 전보배, 현문수 (2021).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19-40.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019>
- 김정하 (2001).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전통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201-230. <https://doi.org/10.14404/JKSARM.2001.1.1.201>

- 김철효 (2009). 국내 미술아카이브 Art Archives 설립 시도 사례. *조형 아카이브*, 1, 93-116.
- 김혜인 (2013). 문화예술 기획인력의 개념과 인력양성 활성화 방안: 시각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8(4), 23-45.
- 김혜인 (2014).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효선, 김지현 (2014).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인식조사. *기록학연구*, 42, 73-134.  
<https://doi.org/10.20923/kjas.2014.42.073>
- 문화체육관광부 (202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서울: 진한엠앤비.
- 문화교류연구소 담당자 (2023. 8. 21.). 인터뷰 [전화].
- 박남희 (2018). 21세기 문화예술기관과 전문인력양성 교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 테크니션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43, 195-224. <https://doi.org/10.17057/kahoma.2018..43.008>
- 백남준아트센터 담당자 (2023. 9. 4.). 인터뷰 [대면].
- 백령 (2007). 200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정착화 방안. *문화정책논총*, 20, 193-217.
- 백지숙 (2018). *본 것을 걸어가듯이: 어느 큐레이터의 글쓰기*. 서울: 미디어버스.
- 부산시립미술관 담당자 (2023. 8. 22.). 인터뷰 [전화].
- 서수옥 (2006). 우리나라 미술관 자료실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서울시립미술관 담당자 (2023. 9. 7.). 인터뷰 [대면].
- 안지숙 (2019). 아카이브를 활용한 전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제2판)*. 서울: 박영스토리.
- 이상민 (1998). 기록관리학과 아키비스트 교육훈련제도. *기록보존연구*, 11, 109-141.
- 이영학 (200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323-353.
- 이윤정, 정연경 (2021). 국내외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67-591.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567>
- 이호신 (2018). 미술관 기관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례연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1-24.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4.001>
- 정연경 (2003). 미국의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34-51.  
<https://doi.org/10.14404/JKSARM.2003.3.2.034>
- 정연경 (2005). 한국과 미국의 대학원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5-25.  
<https://doi.org/10.14404/JKSARM.2005.5.2.005>
- 정연경 (2010).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99-118.  
<https://doi.org/10.14404/JKSARM.2010.10.1.099>
- 정혜린 (2008). 미술작품의 기록가치 구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조민혜 (2021). 지역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 황동열 (2007). 예술아카이브의 현황과 도입방안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12, 177-215.
- Chatalbash, R., Hernandez, S., & Schwenke, M. (2022). *Museum Archives: Practice, Issues, and Advocacy*.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신경림 번역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Jisook (2019). A Study on Archive-Based Exhibitions.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Curatorial Studies & Art Management, Korea.
- Baik, Young (2007). A Study on the 2007 "Arts and Culture Education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to Formulate a Plan for Improvement.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0, 193-217.
- Busan Museum of Art Officer (2023, August 22). Interview with Busan Museum of Art Officer [Telephone].
- Chung, Yeon-Kyoung (2003). A study of archival body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3(2), 34-51. <https://doi.org/10.14404/JKSARM.2003.3.2.034>
- Chung, Yeon-Kyoung (2005). A Comparative Study of Graduate Level Archival Curriculum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2), 5-25. <http://doi.org/10.14404/JKSARM.2005.5.2.005>
- Chung, Yeon-Kyoung (2010).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a New Direction for Archiv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1), 99-118. <http://doi.org/10.14404/JKSARM.2010.10.1.099>
- Culture Communication Center Officer (2023, August 21). Interview with Culture Communication Center Officer [Telephone].
- Gang, Ju-Yeon, Kim, Tae-Young, Bae, Sung Jung, Lee, Seung Chae, & Oh, Hyo-Jung (2019).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of Curriculum Operation for Archives and Records Man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2), 25-50. <http://doi.org/10.14404/JKSARM.2019.19.2.025>
- Hwang, Dong-Ryul (2007).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arts archives and introduction scheme in Korea. *Asian Dance Journal*, 12, 177-215.
- Jeong, Hyerin (2008). A Study on a Method to Manage Records to Realize Recording Value of Artwork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Korea.
- Jo, Minhye (2021).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Regional Public Art Museum Archive.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Archival Science, Korea.
- Kim, Chulhyo (2009). Domestic Art Archives establishment trial case. *Form Archives*, 1, 93-116.
- Kim, Dal-Jin (2009). Research on the administration of arts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and institution of arts information center. *Form Archives*, 1, 55-91.
- Kim, Dal-Jin (2012). Distribution status, collection conditions and challenges of Korean art archives.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 24, 241-282.
- Kim, Hye-In (2013). Concept of Culture & Art Professionals and Measures to Improve Manpower Training Policy: Focusing on Visual Ar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8(4), 23-45.
- Kim, Hye-In (2014).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human resources system to train museum and art museum professionals.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Kim, Hyo-Sun & Kim, Ji-Hyun (2014). A study on perception of adoption of ISO 30301 management system for records standard certif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73-134. <https://doi.org/10.20923/KJAS.2014.42.073>
- Kim, Jung-Ha (2001). A Study on the case of education to train an archivist-Focus on the archival training courses

- and the tradition of archival science in Ital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 201–230. <https://doi.org/10.14404/JKSARM.2001.1.1.201>
- Kim, Ki Hyun (2000). A Study on Introducing Art Archives to Kore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museums studies, Korea.
- Kim, Young-Ae (2000).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Archivists in Germany: Based on the curriculum of Marburgschul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 195–230.
- Kim, Young-ho (2015). A Critical View on Museum Policy in Korea. *Journal of Museum Studies*, 29, 23–37.
- Kim, Young-ho (2020, July 2). The Museum Act cannot continue like this: The problem of the name of the law. *Korean Society of Museum Studies*. Available: <http://www.museumstudies.kr/?c=5/94&uid=1099>
- Kim, Youseung, Park, Zi-young, Park, Tae-yeon, Son, Seunghee, Youn, Eunha, Lee, Minyoung, Jun, Bobae, & Hyun, Moonsoo (2021). A Study on Alternative Strategies for Archiv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1(1), 19–40.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019>
- Lee, Ho-Sin (2018). A Case Study on Acquisition and Arrangement at Institutional Archives at an Art Museum: Focus o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4), 1–24.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4.001>
- Lee, Sang-Min (1998). Archival Studies and Archivis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rchival Preservation Research*, 11, 109–141.
- Lee, Young-Hak. (2009).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323–353.
- Lee, Yun-Jung & Chung, Yeon-Kyoung (2021).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um of Graduate Schools of Archival Sciences in Korea and the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67–591.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56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2). Overview of Cultural Infrastructure in Korea. Seoul: JinhanM&B.
- Nam June Paik Art Center Officer (2023, September 4). Interview with Nam June Paik Art Center Officer [Face-to-Face].
- Paik, Jisook (2018). Seeing-walking-thinking: a curator's writing. Seoul: The Book Society.
- Park, Namhee (2018).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and Training for Professional Workforce in the 21st century: Focus on Exhibition Technician Education Program of National of Asia Culture Center. *Journal of History of Modern Art*, 43, 195–224. <https://doi.org/10.17057/kahoma.2018..43.008>
- Seoul Museum of Art Officer (2023, September 7). Interview with Seoul Museum of Art Officer [Face-to-Face].
- Suh, Sook (2006). A study of art museum libraries: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development plan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Korea.
- Yoo, Kiwoong, Chung, Jongwon, Kim, Youngsuk, & Kim, Hanbeol (2018).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2nd ed). Seoul: Parkyoung Story.